The Birds

- □□

정보

Ottorino Respighi: The Birds (Gli uccelli, P. 154)
작곡가: Ottorino Respighi (1879–1936)
작품명: The Birds (Gli uccelli, P. 154)
장르: 고음악 자료를 바탕으로 한 5악장 관현악 모음곡
작곡 시기: 1928년
초연 기록: São Paulo Teatro Municipal, São Paulo
IMSLP: https://imslp.org/wiki/Gli_uccelli_(Respighi,_Ottorino)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he_Birds_(Respighi)

Ottorino Respighi의 The Birds는 17세기와 18세기의 건반 ·류트 선율을 현대 관현악으로 옮긴 다섯 악장 모음곡이다 . 새를 노래하는 성악곡이나 자연음 녹음이 아니라, 옛 선율과 춤 리듬을 오케스트라의 색채로 다시 만든 기악 작품이다. Preludio, La colomba, La gallina, L'usignolo, Il cucù 가 차례로 이어지며, 하프 · 첼레스타 ·피콜로가 현악과 목관에 밝고 섬세한 음색을 더한다.

개요
Respighi는 고음악을 그대로 복원하기보다 자신의 관현악법으로 다시 쓰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1928년 3 월과 4월 Ricordi에 보낸 편지에서 Gli uccelli를 전사 작업이라고 부르며 브라질 순회에 악보를 가져갈 준비를 적었다. 작품은 그해 Ricordi에서 출판되었고 , São Paulo Teatro Municipal에서 연주된 기록이 남아 있다.

다섯 악장은 각각 다른 옛 작곡가 또는 전승 선율을 바탕으로 한다. 전주와 마지막 곡은 Bernardo Pasquini, La colomba 는 Jacques de Gallot, La gallina 는 Jean-Philippe Rameau의 음악에서 출발한다. L'usignolo 는 17세기 영국의 익명 자료와 연결되며, 후대 해설에는 네덜란드어 민요와 Jacob van Eyck의 전사본도 언급된다. Respighi는 이 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새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빠르기와 악기 조합으로 한 모음곡 안에 묶었다.

출판 정보와 자료

Ricordi는 1928년에 관현악 총보와 파트를 출판했다. 작품 번호는 P. 154이며, IMSLP에는 IOR 52라는 내부 표기도 함께 보인다. 피아노 축약판과 후대의 5중주 편곡은 원래 관현악판과 별도의 자료다.

소요 시간

전곡은 보통 약 20분이다. John Neschling과 Liège의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BIS 음반은 다섯 곡을 20분 31 초에 담았다. 각 곡은 Preludio 2분 54초, La colomba 5분 22초, La gallina 3분 07초, L'usignolo 4분 13초, Il cucù 4분 55초로 표시된다. 빠르기와 반복에 따라 전체 길이는 20분 안팎에서 달라진다.

편성

목관: 플루트 2(제 2플루트는 피콜로 겸용), 오보에 1,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2, 트럼펫 2
기타: 첼레스타, 하프
현악: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팀파니와 별도 타악기는 기본 관현악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프와 첼레스타는 옛 건반 ·류트 선율의 가벼운 울림을 넓히고, 피콜로와 플루트는 새의 울음이나 날갯짓을 직접 흉내 내기보다 높은 음역의 움직임을 만든다.

악장별 구성

I. Preludio (Allegro moderato)

전주는 Pasquini의 건반곡에서 출발한다. 짧은 선율과 명료한 리듬이 이어지며, 뒤의 네 악장에서 돌아올
재료를 미리 보여 준다. 현악과 목관이 옛 춤곡의 선을 나누어 연주하고, 하프와 첼레스타가 관현악의 표면을 가볍게 밝힌다.

II. La colomba (Andante espressivo)

비둘기를 뜻하는 두 번째 곡은 Jacques de Gallot의 류트 선율을 바탕으로 한다. 오보에가 긴 선율을 이끌고 현악이 부드러운 화음을 받치면서, 첫 곡의 분명한 박보다 느린 호흡을 만든다. 관현악판은 한 대의 류트가 지닌 단선율을 여러 악기군에 나누어 배치한다.

III. La gallina (Allegro vivace)

암탉을 뜻하는 세 번째 곡은 Rameau의 건반음악에서 가져온 짧은 몸짓을 빠르게 반복한다. 목관과 현악의 짧은 음형이 서로 이어지고, 트럼펫의 종지가 움직임을 끊어 세운다. 춤곡의 리듬과 익살스러운 악기 응답이 곡의 중심을 이룬다.

IV. L'usignolo (Andante mosso)

나이팅게일을 뜻하는 네 번째 곡은 17세기 영국의 익명 자료와 연결된 선율을 사용한다. 플루트와 저현이 긴 선을 이어 가고 하프와 첼레스타가 높은 음역을 더해, 밤의 정적 속에 작은 움직임이 번지는 듯한 관현악을 만든다. 이 곡은 실제 새소리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옛 선율을 밤의 음향으로 재구성한 부분이다.

V. `Il cucù` (Allegro)

뻐꾸기를 뜻하는 마지막 곡은 Pasquini의 `Toccata sul verso del cucco`와 연결된다. 하강하는 장 3도 음형이 반복되며 뻐꾸기의 짧은 호출을 연상시키고, 전주의 재료가 다시 돌아오면서 모음 전체를 묶는다. 빠른 종결 뒤에는 앞선 악장들의 선율 조각이 스쳐 지나가며 곡이 끝난다.

관현악판과 연주

Respighi가 만든 것은 고음악의 복원판이 아니라 자유로운 관현악 전사다. Ricordi 편지에서 그가 사용한 '전사 작업'이라는 말은 원곡의 음형을 그대로 보존하기보다 악기와 음역을 새로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네덜란드 민요, 영국 익명 선율, Pasquini와 Rameau의 원곡은 작품의 재료이고, 실제로 들리는 색채와 음향은 Respighi의 20세기 관현악법에 속한다.

이 모음곡은 뒤에 같은 제목의 발레에도 사용되었지만, 콘서트용으로 출판된 다섯 악장 모음곡과 발레 공연의 편성·무대 처리는 구분된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는 새의 이름을 묘사적인 줄거리로 풀기보다, 각 악장의 원자료와 빠르기, 악기 조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라가게 된다.

주요 레코딩

- **John Neschling / Orchestre Philharmonique Royal de Liège (2021년 녹음, 2023년 발매, BIS-2540):** 작품 단독 트랙을 20분 31초에 담았다. Gramophone의 Adrian Edwards는 Neschling이 다섯 곡의 유머와 관현악 색채를 선명하게 살린다고 평했다.
- **Antal Doráti / London Symphony Orchestra (1959년 녹음, Mercury MG 50153):** IMSLP가 작품 페이지에서 연결하는 초기 스테레오 시대의 녹음이다. *The Birds*를 Respighi의 다른 관현악 작품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역사적 수록이다.
- **Eugene Ormandy / Philadelphia Orchestra (1966년 녹음):** Listeners' Club가 소개한 수록으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넓은 현악 음향과 하프·첼레스타가 더해진 관현악판의 색채를 들려준다.

주요 자료

- IMSLP, *Gli uccelli*: P. 154, 다섯 악장, 1928년 Ricordi 초판, 총보와 파트 목록.
- Los Angeles Philharmonic, *The Birds*: 작곡 연도, 약 20분의 시간, 원자료 작곡가와 관현악 편성.
- Ricordi Digital Archive, Respighi letter, 25 March 1928: Respighi가 작품을 전사 작업으로 부른 편지와 브라질 공연 준비.
- Flaminio Online, *Gli uccelli*: 다섯 악장의 빠르기, 원자료와 초연 기록을 정리한 해설.
- BIS Records, *Respighi: The Birds*: Neschling·Liège Philharmonic 녹음과 작품 단독 트랙 시간.
- Gramophone, *Respighi: The Birds and Ancient Dances and Airs*: Neschling 음반에 관한 Adrian Edwards의 비평.